

朝鮮時代 저고리 깃에 대한 研究

金 文 子*

A Study on the Jeugo-ris' Collar in the Yi Dynasty

Moon Ja, Kim

<目 次>	
I. 序 論	2. 顯宗·肅宗·景宗代(1700年 前後)의 저고리
II. 옷깃의 意義 및 語源	V. 朝鮮時代 後期
III. 朝鮮時代 初期	VI. 結 論
IV. 朝鮮時代 中期	
1. 宣宗·光海君代의 저고리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Jeugo-ris' collar patterns according to the pictures of the actual measurement of the bequests in Yi dynasty.

In early Yi dynasty not only outside collar but also inside collar was the Mog-pan collar. In middle Yi dynasty many Jeugo-ris' bequests has been discovered. The form of the collar was various In before and after the 1590's, the Mog-pan collar and Kal-collar, Dang-ko collar was coexisted. But after the 1700's Jeugo-ris' collar pattern was fixed to the Dang-ko collar.

In early and middle Yi dynasty the width of the collar was three or four times as wide as it on thesedays. In late Yi dynasty the inside collar length was longer than the outside collar length and the width of the collar was gradually narrow. The same thing as the form of the collar on these days had been appeared from the 1900's.

I. 序 論

本 研究는 우리나라 朝鮮時代 저고리(赤古里)의 옷깃의 형태 변천을 유물을 중심으로 考察한 것이다.

목 부위는 人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

이기 때문에 옛부터 人體裝飾의 요점으로 되어 왔다. 바꾸어 말해서 頸部の 裝飾에 있어서 그 表現과 情緒는 人體의 全裝飾의 統一을 결정한 다. 우리말에 「옷깃(衿)을 여민다」 혹은 「옷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가리키는 바는 여기에 있다.⁽¹⁾

이같이 人體裝飾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 專攻(博士過程)

(1) 張文戶(1980), 「服飾美學」(서울: 獎學社), p.84.

옷깃은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저고리의 옷깃은 주로 直領의 상태이므로 옷깃 자체의 큰 변화는 볼 수 없으나 그 중 깃코라고 하는 설에 닿는 끝 부위의 형태와 옷깃의 끝 부위가 설에 걸치는 정도의 차이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朝鮮時代 저고리 遺物이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報告書도 계속 발표되고 있어 저고리의 전반적 형태는 대강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고리의 한 부위에 관한 계통적 研究는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초상화나 實物 사진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저고리 옷깃의 형태 변천을, 주로 遺物의 실측도를 가지고 考察해 보았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遺物이 出土되면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은 현재까지 출토된 모든 저고리 遺物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계통적인 형태 변천을 알아보겠다.

II. 옷깃의 意義 및 語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옷깃이라는 용어는 저고리나 袍 등의 부위 중에서, 목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에, 길(몸판)과 같은 천이나 또는 다른 천을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어 준 것을 말한다.

洋服型에 있어서의 칼라(collar)와는 그 개념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洋服型에 있어서는 네크 라인(neck line)과 칼라는 처음부터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칼라의 語源은 라틴어의 頸輪을 뜻하는 Collare로서 그것이 또 목을 뜻하는 Collum에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래 圓筒形의 목을 두르는 물건의 총칭이었다. 오늘날 테일러드(tailored)에서 칼라와 라펠(lapel)로 분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²⁾

이같이 칼라는 몸판에 부착되어 있으면서도 밖으로 접혀지는 형태면에서 우리의 옷깃과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한편, 옷깃이라는 용어가 朝鮮時代 文獻에 나타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領은 옷가지라」〈世祖代 간행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諺解 上一之二 76〉⁽³⁾

「눈흐를 스주니 옷기제 젓는피오」〈杜詩諺解 初刊⁽⁴⁾ 八卷 28〉

「여희오져 흥는 옷기즐 도로 對호라」〈杜詩諺解 初刊 廿三卷 55〉

「옷깃 너미오 길 너매 나사가는다」〈杜詩諺解 初刊 八卷 20〉

「領：목령, 옷깃령 襟：옷깃금」〈訓蒙字會⁽⁵⁾ 中 24〉

「털두른 옷깃(風領)」〈譯語類解補⁽⁶⁾ 28〉

「옷깃(衣領)」〈同文類解⁽⁷⁾ 上 56〉⁽⁸⁾

여기에서 보면 옷깃은 옷깃이라고도 쓰였던 것 같으며, 후대에 갈수록 점차 옷깃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 같다.

이 문헌들에 나타난 옷깃을 뜻하는 漢字語로는 襟, 領, 衿 등을 들 수 있는데 漢字로 옷깃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외에도 많이 있다. 우선 그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는 衿·襟·領을 들 수 있다.

衿은 본래 ‘끈’의 의미로 『詩經』, 『說文』, 『爾雅』 어디에나 그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禮記』에는 「衿纓綦履」 등으로 ‘묶는다’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같은 『詩經』 중에도 鄭風에는 「青青子衿 悠悠我心」 등으로 기술해 『毛傳』의 注釋에 의해 「青衿青領也」로, 衣服의 옷깃의 의미로도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이 漢代에 내려와 『方言』에는 「衿謂之交一衣交領也」로 있어, 衣服의 앞에 교차되는 부분을 지시하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거기에 6世紀代의 『顏氏家訓』下에는 「領下連干衿」으로

(2) 張文戶(1980), p. 84.

(3) 金美子(1976), 「民庶 便服袍 옷깃에 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1호, p. 28.

(4) 分類杜工部詩諺解의 약칭으로, 1481년(성종 12년)에 柳充謙 등이 王命에 의해 唐 詩人 杜甫의 시를 한글로 해석해 간행한 책. 1632년(仁祖 10) 중간이 간행됨.

(5) 1527년(中宗 22)에 崔世珍이 지은 한자자습서, 上·中·下 3권으로 나누어 있는데 服飾에 관한 것은 中卷에서 다루고 있다.

(6) 우리말로 풀이한 중국어 단어집 「譯語類解」를 증보한 책. 1715년(肅宗 41년) 金弘喆이 지음.

(7) 1748년(영조 24)에 와전된 청나라 物名을 교정한 책. 玄文恒이 왕명에 의해 편찬.

(8) 劉昌惇(1979), 「李朝語辭典」(서울: 연대출판부), p. 583.

있어 목둘레만이 領이고 領에 붙어 이어진 앞 옷깃을 衿으로 表現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이 같은 文字도 時代에 의해 그 意味가 꽤 다르고 있는데, 中國의 古代文獻에는 衿의 文字를 옷깃의 의미로 사용된 用例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襟은 『爾雅』에는 「衣皆謂之襟」으로 되어 있어 옷의 말단을 나타내고 있고, 『釋名』에는 「襟, 禁也, 交於前, 所以禁禦風寒也」로 되어 있어 風寒을 막기 위해 옷의 앞에 열린 부분을 여민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領은 中國의 文獻上 가장 많이 옷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文字로서 이 領도 본래는 項 즉, 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詩經』小雅에는 「交交桑扈鶯其領」으로 나타나고, 『釋名』에도 「領頸也以壘也 亦言總領衣體爲端首也」로 기술해, 頸의 의미로부터 변해서 목둘레를 두르는 部分으로 轉用되었던 것을 說明하고 있다. 領은 또한 의복의 목 部分을 지시하는 뜻으로 盤領·直領·曲領·丹領·交領 등의 熟語가 만들어졌다.

領襟 등으로 2文字를 결합시켜 사용되는 경우는 『顏氏家訓』을 보면, 목둘레를 덮는 領과 그 아래 계속 여며지는 部分의 襟을 합쳐 옷깃 전체를 表現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⁹⁾

Ⅲ. 朝鮮時代 初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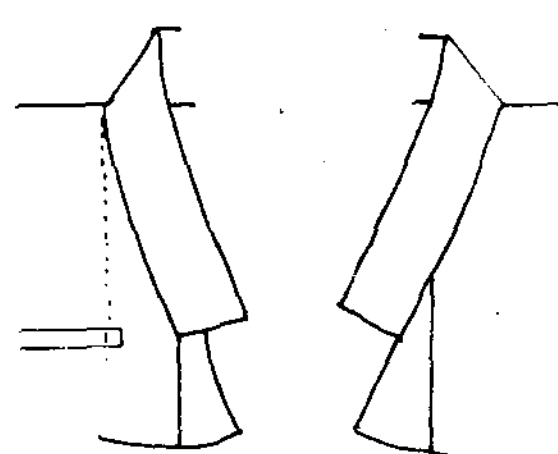
조선 초기 저고리 유물의 예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앞으로 더 좋은 유물이 발견되면 보충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까지 出土된 것을 가지고 그 옷깃의 형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근래에 出土된 忠北 淸原郡 北一面 外南里 出土 順天 金氏 저고리⁽¹⁰⁾를 들 수 있다. 이 저고리는 蔡基秀(1922년생) 12代 祖母의 遺衣로서 그 형태로 보아 조선 초기(1530年代⁽¹¹⁾)의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例로는 조선 제 2대 定宗의 부마 朴寅의 5代孫婦 安東 金氏의 壽衣⁽¹²⁾가 있다. 그런데 후손이 지닌 族譜에 의하면 安東 金氏의 沒年은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인 1560年代이며 나이는 37~38세로 측정되며 몸집은 작은 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壽衣는 沒年보다 좀 遡及한 年代였을 것이며, 이로써 볼 때 朝鮮王朝 初期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 初期의 옷깃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 順天 金氏 저고리 중 소저 적삼⁽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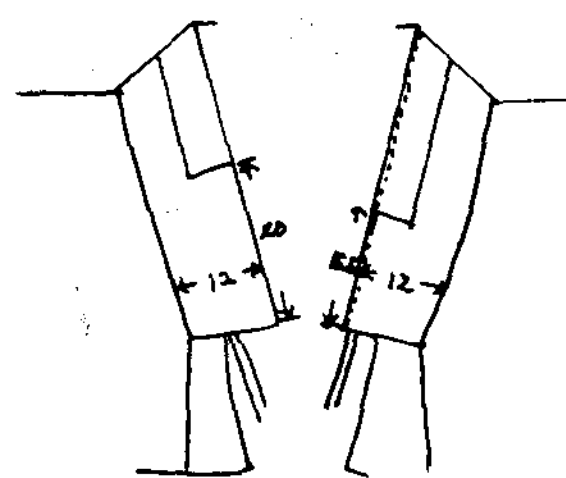
[圖 1]

[表 1] 단위 : cm

명 칭	實物 1號
뒷 길이	50
고 대	18
깃나비	11

이 저고리의 옷깃은 현대의 저고리의 깃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걸깃은 지금의 안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안깃은 안설 윗나비에 반이 걸려 있다. 깃코는 걸깃 안깃 모두 목관깃으로 되어 있고, 깃궁둥이도 각이져 있다. 깃나비는 아주 넓어 11cm나 되는데 이는 지금의 보통 깃나비(3.3~3.5cm 정도)에 비해 3배 이상의 나비이다.

B. 順天 金氏 저고리 중 갈색 명주 솜저고리 a(實物 2號-1)와 갈색 명주 솜저고리 b(實物 2號-2).⁽¹⁴⁾



[圖 2] 實物 2號-1

[表 2] 단위 : cm

명 칭	實物 2號-1	2號-2
뒷 길이	48	50
고 대	18	18
깃 나 비	12	12
깃 길이	88	91.5
동정나비	4.5	4
동정길이	57	57

(9) 杉本正年(1979), 「東洋服飾史論攷」 古代編(東京:文化出版局), pp.84~87.

(10)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충북대학교 소장 유물 실측도」, p.27.

(11) 朴京子·林純暎(1981), 「韓國 衣裳構成」(서울:수학사), p.53.

(12) 1965년 3월 21일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雙嶺里에서 발굴, 국립박물관에 소장.

유희경(1974), 「한국복식사연구」(서울:이대출판부), pp.487~88.

(13)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p.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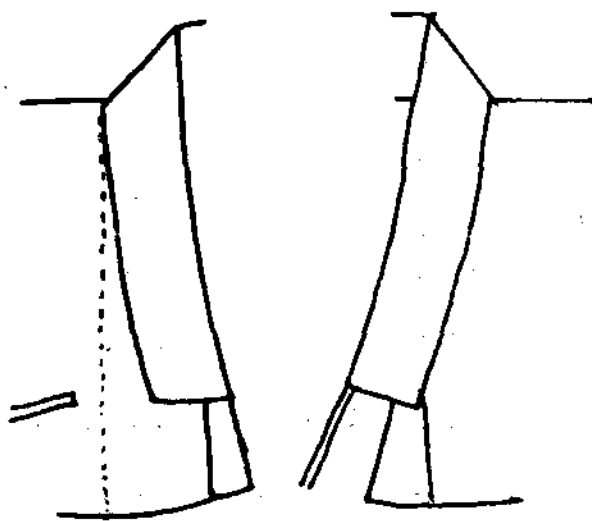
(14) 앞책, pp.38~41.

이들 저고리의 옷깃은 겹깃·안깃 모두(圖 1)의 안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옷고름이 달린 위치가 틀리고 있다. 즉 [圖 1]에서는 안깃이 달린 쪽에 지금의 저고리 옷고름같이 달려 있으나, [圖 2]에는 옷고름이, 깃 아래 부분에 섰과 겹치지 않은 부분에 달려 있다(단 實物 2號-1에는 안깃 쪽의 옷고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깃 위에 달려 있는 동정은 폭을 깃나비의 1/3쯤 되고 있고 그 길이는 깃길이보다 훨씬 짧아서 지금의 동정처럼 깃길이보다 약간 짧은 것은 아니다.

이 實物 2號들의 깃은 또한 겹깃 위를 좁게 상침(스티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정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C. 順天 金氏 저고리 중 소재면 겹저고리(實物 3號)⁽¹⁵⁾



[表 3]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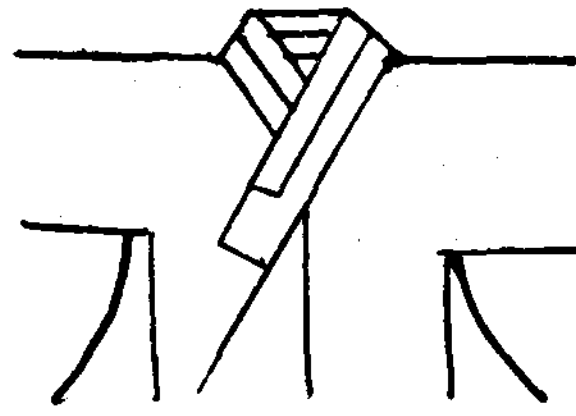
명 칭	實物 3號
뒷길이	49
고 대	18
깃나비	11.5

[圖 3]

이 저고리 옷깃은 겹깃은 實物 2號(圖 2)와 같은 형태이나 안깃은 안깃선과 동일선으로 길 쪽으로 쪽 들어와 달려 있다. 이 옷깃에는 동정은 없는데 옷고름이 [圖 2]와 달리 겹깃 쪽은 깃 끝에 바짝 붙여 달려 있고, 안깃이 달린 쪽은 고대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선보다 훨씬 바깥쪽에 옷고름이 달려 있다.

D. 安東 金氏 자주 명주 솜누비 저고리(實物 4號-1) 청색 명주 겹저고리(實物 4號-2)⁽¹⁶⁾

이들 저고리 깃은 實物 1號(圖 1)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동정이 달려 있는데 그 동정나비가 깃나비의 반 이상이 되고 있다. 이 저고리는 고대가 앞에 나온 順天 金氏 저고리 고대(18cm)보다 좁은 14cm로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圖 4] 實物 4號-1

(이경자, “여자 저고리 小考”에서)

[表 4] 단위 : cm

명 칭	實物 4號-1	4號-1
뒷길이	58	59
고 대	14	14
깃나비	10.5	10.5
동정나비	6.5	6.5

이상에서 살펴 본 朝鮮 初期의 저고리 옷깃 형태는 우선 전부가 깃중등이가 모난 목판깃 형태이며 깃나비가 아주 넓은데, 깃 위에는 동정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깃에 달려 있는 옷고름도 일정치 않아 깃 아래 선에 위치한 경우도, 끝에 달린 경우와 중간 정도 위치에 달린 경우가 있다.

IV. 朝鮮時代 中期

朝鮮時代 中期의 저고리는 出土品의 저고리깃 형태로 보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壬亂 前後인 宣祖代(1590年代)·光海君代(1608~1623年)가 한 단계이고, 그후인 顯宗·肅宗·景宗代(1700年 前後)가 또 한 단계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조선 중기 저고리 옷깃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宣祖·光海君代의 저고리

(1) 廣州 李氏·淸州 韓氏 저고리⁽¹⁷⁾

廣州 李氏인 李彥雄은 中宗~宣祖 때 사람으로 추정되며, 그 며느리 淸州 韓氏는 宣祖年間 때 사람으로, 이 遺物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전의 衣服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¹⁸⁾

(2) 長興 任氏의 저고리⁽¹⁹⁾

壬亂 당시의 各將 金德齡(1567~1596)의 姪婦인 長興 任氏는 將軍과 同時代에 生存한 것으로 記錄이 있다. 따라서 任氏 夫人의 衣服 着用年代를 金將軍과 같은 1590년대로 볼 수 있겠다.⁽²⁰⁾

(15) 이대 의류지물학과(1980), pp.30~31.

(16) 이경자(1970), “여자 저고리 小考,”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1~42.

(17) 1979년 4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出土. 1980. 11. 29. 중요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

(18) 문화재관리국(1979. b), 「廣州 李氏 衣服一括遺物」, 중요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80호.

(19) 1965년 7월 全南 光州市에서 出土. 光州市立博物館에 보관 중.

(20) 문화재관리국(1979. a), 「중요민속자료(服飾)」, 중요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75호, p.23.

(3) 求禮 孫氏의 저고리⁽²¹⁾

求禮 孫氏는 卞惟寅(1566~1641)의 측실인데 孫氏의 生卒年은 알 수 없으나 본 부인인 신씨 외에 孫氏·吳氏는 측실이기 때문에 그 연령차를 10세로 본다면 50세를 일기로 보아 1576~1626年이 되므로 적어도 宣祖 말년에 해당되므로 壬亂 前後로 보는 것이 좋겠다.⁽²²⁾

(4) 後谷里 出土 저고리⁽²³⁾

傳說에 朴將軍墓라고 불리는 墓(雙墳)에서 出土된 遺物로 年代도, 그 주인공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나 遺衣의 形態와 質感·色彩·무늬·바느질법 등으로 미루어 壬亂 前後의 衣服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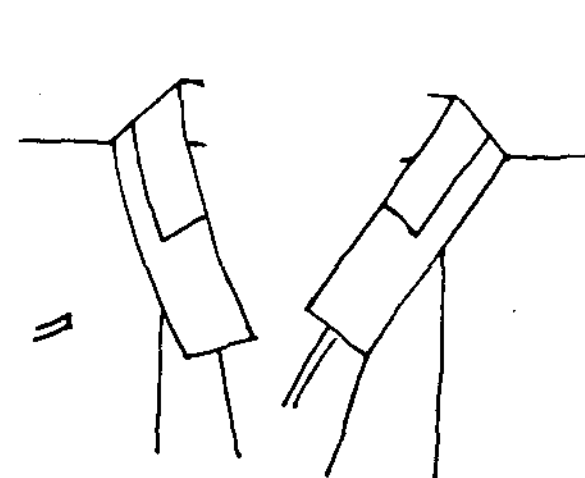
(5) 光海君妃(中宮 柳氏)와 尙宮權氏 저고리

前者는 「丙子生 中宮 柳氏 衣命……」이라는 祝願文이 墨書되어 있어 光海君(1575~1642: 在位 1608~1623) 中宮 柳氏의 것으로 추정되며 後者는 「권시 을유심」이라 墨書가 있어, 中宮을 모셨던 權氏의 것으로 추정한다.⁽²⁵⁾

이상과 같은 朝鮮時代 宣祖·光海君代에 걸친 저고리 유물은 다수가 출토되어 그 하나 하나를 전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형태별로 분류하여 주로 깃궁둥이가 섰에 붙은 위치 및 그 생김새 등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A. 後谷里 出土 남색 명주 삼수 겹유 저고리(實物 5號-1)·소색·무명 겹유 저고리(實物 5號-2)⁽²⁶⁾

이들 저고리 옷깃은 朝鮮 初期의 順天 金氏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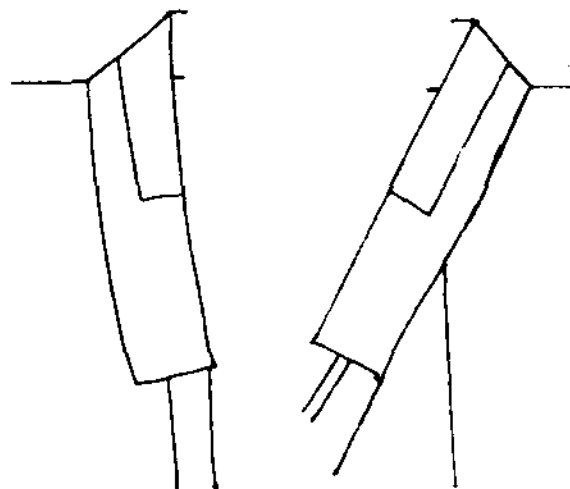
[圖 5] 實物 5號-1

[表 5] 단위 : cm

명칭	實物 5號-1	5號-2
뒷길이	56	47
고 대	18.8	20
깃나비	11	10
깃길이	91.4	87.5
동정나비	7.8	7
동정길이	50	50

저고리 옷깃(圖 1)과 거의 같은 형태로서 初期의 목관깃이 그대로 中期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實物 5號-2는 안깃 궁둥이를 지금의 걸깃처럼 약간 둥글리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또한 깃나비는 初期의 것들과 거의 비슷한 넓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 廣州 李氏·淸州 韓氏 저고리 중 갈색 명주 목단 당초문 회장 솜저고리(實物 6號1)⁽²⁷⁾ 求禮 孫氏 저고리 중 남명주 솜저고리(實物 6號-2)⁽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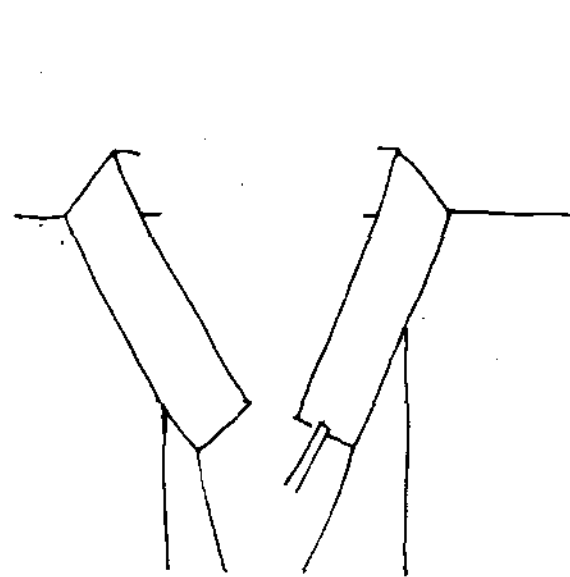
[表 6] 단위 : cm

명칭	實物 6號-1	6號-2
뒷길이	55	58
고 대	20	20
깃나비	11	10
동정나비	6	6

[圖 6] 實物 6號-1

이들 저고리 옷깃은 걸깃은 앞에 나온 것들과 같으나 안깃이 섰에 붙은 위치가 지금의 걸깃과 같아 지금 저고리의 걸깃·안깃이 바뀌달린 형태이다.

C. 後谷里 出土 갈색 목단문단 겹 당저고리(實物 7號-1), 갈색 운문단 겹 당저고리(實物 7號-2), 아청색 小花 당초문단 겹 당저고리(實物 7號-3),⁽²⁹⁾ 그리고 廣州 李氏·淸州 韓氏 저고리 중 素紵 赤衫(實物 7號-4)⁽³⁰⁾



[圖 7] 實物 7號-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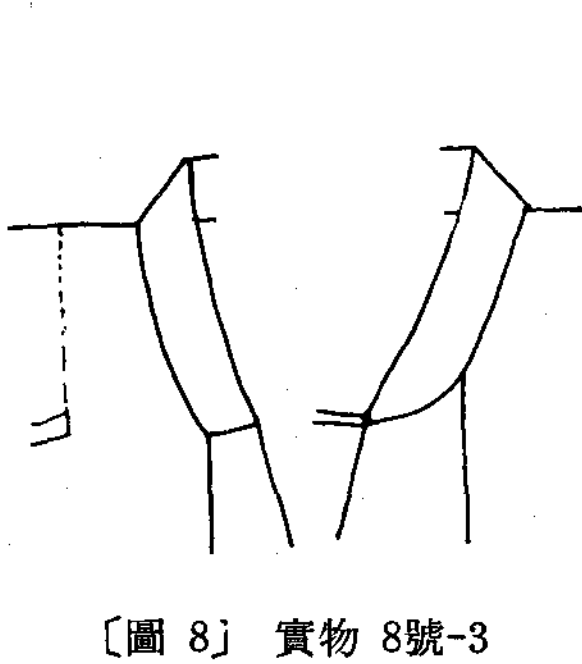
[表 7] 단위 : cm

명칭	實物 7號-1	7號-2
뒷길이	65	65
고 대	20	20
깃나비	10	10
명칭	7號-3	7號-4
뒷길이	66	68
고 대	20	18
깃나비	10	12.5

(21) 1979년 3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뒷산 出土. 충북대박물관에 기증.
 (22) 문화재관리국(1980. a), 「忠北 淸原郡 求禮 孫氏 墓 出土遺物」, 중요 민속자료 지정조사보고서 제 82호, pp. 3~4.
 (23) 1980년 4월,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노계산 出土. 충북대박물관 소장.
 (24) 문화재관리국(1980. b), 「忠北 淸原郡 傅朴將軍墓 出土遺物」, 중요 민속자료 지정조사보고서, 제 83호, p. 3.
 (25) 이경자(1970), p. 53, 59.
 (26)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pp. 53~54. 59~60.
 (27) 문화재관리국(1979. b), pp. 23~26.
 (28)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pp. 102~03.
 (29) 문화재관리국(1980. b), pp. 21~26.
 (30) 문화재관리국(1979. b), pp. 9~12.

이들 저고리 깃은 조선 초기 安東 金氏 壽衣 저고리(圖 4) 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안깃·겉깃이 모두 지금의 안깃과 같은 형태이다. 그런데 특히 後谷里 出土品에는 전부 옆이 터진 당저고리이고 素紵赤衫(實物 7號-4)도 그 길이가 [表 7]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길어(보통은 40~50cm 정도) 이같은 것은 다른 깃과 달리 특수복, 즉 당저고리나 보통저고리 위에 입는 겉저고리 깃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D. 後谷里 出土 소색 무명 적삼 a(實物 8號-1) b(實物 8號-2),⁽³¹⁾ 소색 무명 겹저고리(實物 8號-3),⁽³²⁾ 長興 任氏 白 무명 赤衫(實物 8號-4)⁽³³⁾



[表 8] 단위 : cm

명칭	實物 8號-1	8號-2
뒷길이	52	52.5
고대	20	18
깃나비	8	9
명칭	8號-3	8號-4
뒷길이	52	62
고대	18	
깃나비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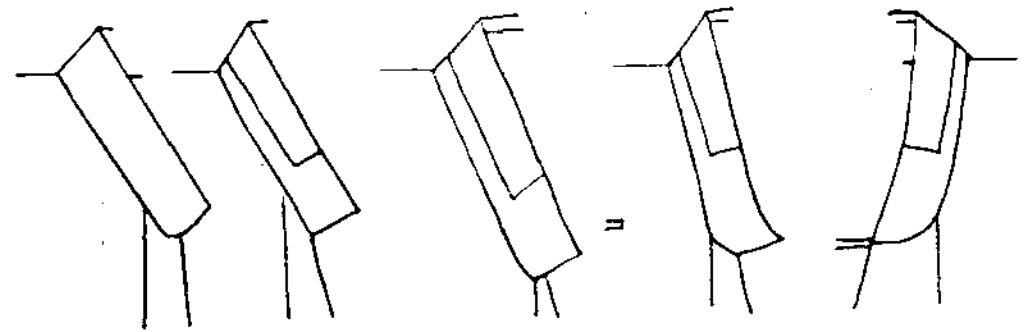
[圖 8] 實物 8號-3

이들 저고리 옷깃은 앞에서 나온 목판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옷깃의 등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겉깃의 깃궁둥이가 급경사가 진 칼깃의 형태가 저고리 옷깃에 나타나고 있어서 中期의 옷깃에 칼깃과 목판깃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칼깃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저고리는 주로 적삼인 바(實物 8號-1, 2, 4) 동정은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實物 8號-3 같은 겹저고리에도 동정은 보이지 않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같은 것에는 동정을 달지 않았는지 추측할 뿐이다. 또한 옷깃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옷고름이 달리는 위치도 변하고 있다. 즉 [圖 8]에 보이는 것처럼 겉깃에 붙어 있는 옷고름은 앞에 나온 여러 예와 달리 지금의 겉고름이

붙은 위치와 같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 後谷里 出土 素色 무명 겹유 저고리(實物 9號-1),⁽³⁴⁾ 求禮 孫氏 저고리 중 素色 명주 솜저고리(實物 9號-2)·남면 솜저고리(實物 9號-3)⁽³⁵⁾·長興 任氏 白 무명 袂襦 저고리(實物 9號-4)⁽³⁶⁾



9號-4 9號-3 9號-2 實物 9號-1

[圖 9]

[表 9]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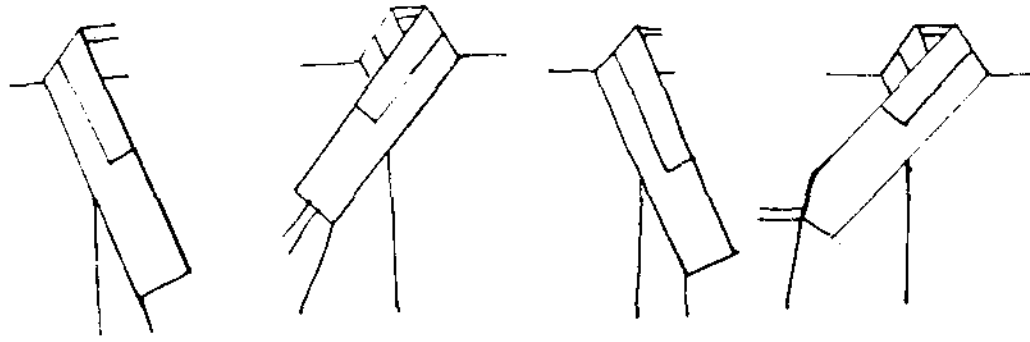
명칭	實物 9號-1	9號-2	9號-3	9號-4
뒷길이	54	60	56	70
고대	18	20	19	
깃나비	10.5	11	10.5	11
깃길이	90	91	88	
동정나비	7	7.5	6.5	
동정길이	47	53	56	

이들 저고리의 옷깃은 [圖 8]의 옷깃과 거의 비슷하나 안깃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안깃의 형태의 차이는 바느질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서 생기는 약간의 변화가 아닐까 추측된다. 겉깃에 있어서도 깃궁둥이가 급경사가 진 칼깃에서 약간씩 둔화되어 지금의 겉깃 궁둥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보인다.

한편, 長興 任氏 저고리(實物 9號-4)는 “壽衣 인데도 기운 곳이 10여 군데나 되는 점을 볼 때 平常時 착용하던 깃을 歛에로 使用한 것이다. 여기에서 壽衣가 그 당시 平常服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見解에 다소의 修正이 따르게 된다”라고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第75號⁽³⁷⁾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遺物로 나타나는 壽衣는 그 전반적인 형태로 보아 平常服과 거의 비슷한 형태였다고 추측된다.

(31) 문화재관리국(1980. b) pp.29~31.
 (32)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pp.96~97.
 (33) 문화재관리국(1979. a), pp.27~28.
 (34) 이대의류직물학과(1980), pp.55~56.
 (35) 앞책, pp.213~14, 104~05.
 (36) 문화재관리국(1979. a), pp.25~46.
 (37) 앞 글.

F. 光海君妃 中宮 柳氏 저고리(實物 10號-1)
尙宮權氏 저고리(實物 10號-2)⁽³⁸⁾



[圖 10] 實物 10號-1 [圖 10'] 實物 10號-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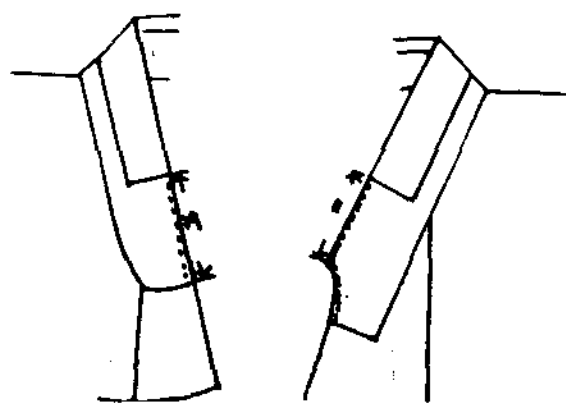
[表 10] 단위 : cm

명 칭	實物10號-1	10號-2
뒷 길 이	78	59
고 대	18	18
깃 나 비	10	10
동정나비	5	5

거의 同時代의 것으로 생각되는 이 두 개의 저고리에는 각기 다른 깃형태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당시는 혼합되어 여러 깃 형태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中宮 柳氏 저고리깃은 목판깃에서 코가 잘된 당코형⁽³⁹⁾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깃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尙宮 權氏 저고리깃은 앞에 나온 [圖 7]의 깃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朝鮮 初期의 목판깃이 이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G. 後谷里 出土 남색 명주 겹유 저고리(實物 11號)⁽⁴⁰⁾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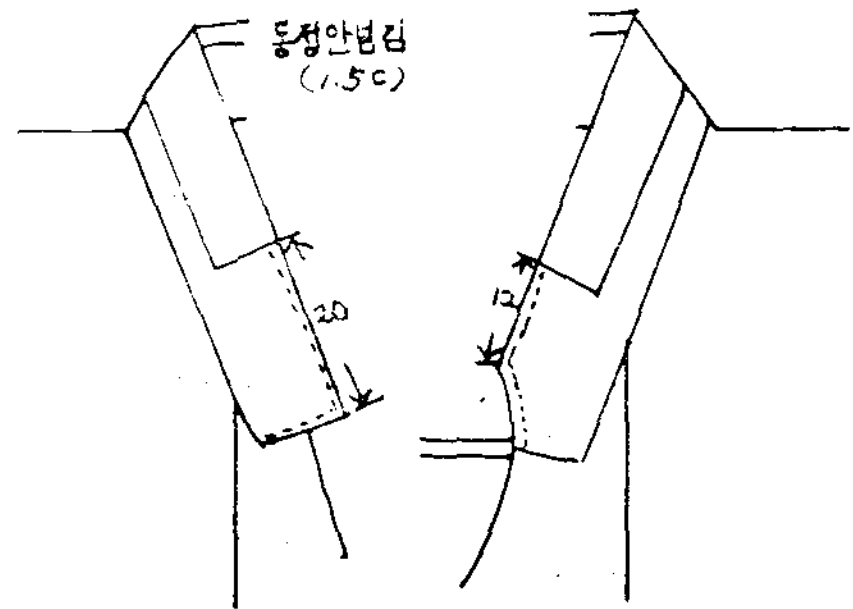
[表 11] 단위 : cm

명 칭	實物11號
뒷 길 이	50
고 대	20
깃 나 비	10
깃 길 이	93
동정나비	7
동정길이	53.5

이 저고리깃은 [圖 10]의 中宮 柳氏 저고리깃보다는 확실하게 당코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깃에다 겹깃·안깃 모두 상침(스티치)을 해주

었다. 또 옷고름이 깃에 달린 위치는 中宮 柳氏 저고리와 같이 깃과 섶이 닿는 위치에 꿰매 달고 있다. 동정은 아직도 깃길이에 비하면 지금의 동정길이보다는 짧은 것이었다. 또 동정나비도 깃나비의 2/3 정도 되는 넓은 폭이다.

H. 後谷里 出土 소색 명주 누비 겹유 저고리(實物 12號-1), 소색 명주 겹유 저고리(實物 12號-2),⁽⁴¹⁾ 求禮 孫氏 저고리 중 명주 솜 회장저고리(實物 12號-3)⁽⁴²⁾



[圖 12] 實物 12號-1

[表 12] 단위 : cm

명 칭	實物 12號-1	12號-2	12號-3
뒷 길 이	47	53	45
고 대	17	21	17.5
깃 나 비	11	12	10
깃 길 이	94	92	98
동정나비	6.5		5
동정길이	55		51

이들 저고리깃에는 [圖 11]과 겹깃은 같으나 안깃은 섶에 반만 걸쳐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實物 12號-1(圖 12)은 겹깃·안깃 모두 상침(스티치)이 되어 있는데, 實物 12號-2는 동정이 안 달려 있고, 깃 위에다 동정 위치까지 상침(스티치)이 되어 있다. 한편 [圖 12]에 나타난 것처럼 동정이 안으로 넘어간 정도는 1.5cm 정도로 동정나비의 1/3도 안 되는 넓이다.

I. 後谷里 出土 갈색 명주 겹유 저고리(實物 13號)⁽⁴³⁾

(38) 이경자(1970), pp. 54~58.

(39) '당코'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本卷 앞의 주에 나온 「李朝語辭典」에는 나오지 않고 다만 1949년 出刊된 「조선말큰사전(2)」, p. 752에 "여편네의 저고리 깃의 색 뽕죽하게 내민 끝"이라는 용어 해설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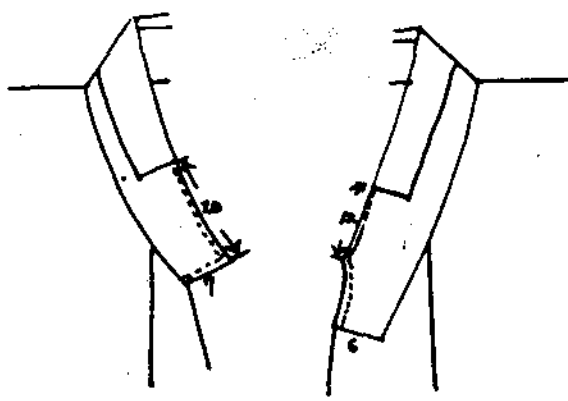
(40) 이대 의류직물학과(1980), pp. 57~58.

(41) 앞책, pp. 69~70, 93~94.

(42) 앞책, pp. 106~107.

(43) 앞책, pp. 71~72.

[表 13] 단위 : cm



[圖 13]

이 저고리깃은 朝鮮 中期 후반부인 1700년대의 代表的인 저고리깃과 같은 형태로 이 저고리깃에서부터 차차 겹깃은 당코형이고, 안깃은 지금의 안깃같은, 朝鮮 中期 후반기와 後期까지의 전형적 형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명 칭	實物13號
뒷 길 이	53
고 대	18
깃 나 비	10
깃 길 이	91
동정나비	6
동정길이	50

2. 顯宗 · 肅宗 · 景宗代(1700年 前後)의 저고리

(1) 李端夏의 夫人 저고리⁽⁴⁴⁾

江原道 旌善郡 臨溪面 蓬山里 李種厚 所藏인 李端夏(1625~1689年, 仁祖 3年~肅宗 15年 官至左議政)의 夫人인 貞敬夫人이 입었던 저고리 1점으로 顯宗 初(1662年)에서 肅宗 初(1689年) 사이의 것으로 본다.

(2) 金德遠公 一家衣服 중 저고리⁽⁴⁵⁾

이 遺物들은 現在로 韓國에서 出土한 服飾 중 가장 완비하고 다양한 것으로 朝鮮朝 肅宗代의 것이며 金德遠公 生存時(1634~1704年)의 服飾 實態를 考證하는데 있어 필요 충분한 資料라고 믿어진다. 遺物로 出土된 것은 金德遠과 그의 夫人 및 母親의 壽衣이다. 특히 저고리가 다수 出土되고 있었다.

(3) 縣夫人 全州 崔氏의 저고리⁽⁴⁶⁾

이 유품은 第21代 英祖 壬子年(1732年)에 83 歲로 돌아갔다는 縣夫人 全州 崔氏의 것으로 3 個가 있다. 유품 연대는 肅宗 · 景宗代의 것이라 생각된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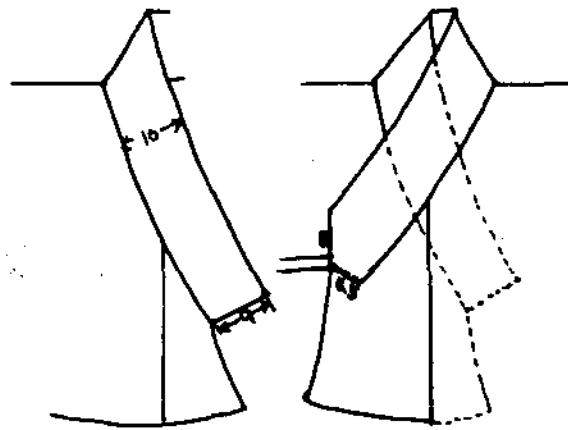
(4) 마석 出土 저고리⁽⁴⁸⁾

이 유품은 그 모양이나 형태가 全州 崔氏의

저고리와 거의 같은데 年代는 그로부터 약 50년 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다.

A. 縣夫人 全州 崔氏 저고리 중 삼희장금직 저고리(實物 14號-1), 金德遠公 一家衣服 중 雲紋緞袂襦 赤古里⁽⁴⁹⁾(實物 14號-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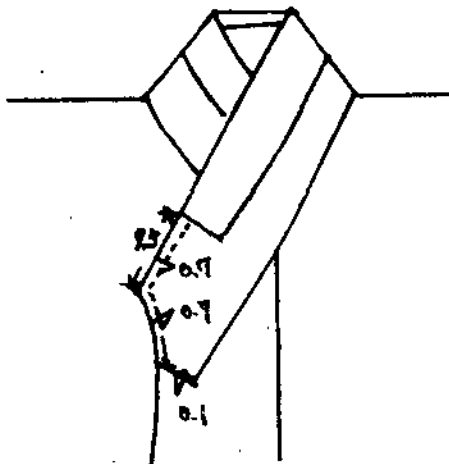
[圖 14] 實物 14號-1

이들 저고리깃은 [圖 13]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당코 부분의 파임이 없고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圖 11, 12, 13]의 옷깃들은 안깃이 겹에 붙은 위치가 전부 다른데, [圖 14]에 나타난 것처럼 朝鮮 中期 1700년을 前後하여 지금의 안깃과 같은 위치로 고정되어진 것 같다. 또한 [圖 13]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안깃에 있어 깃 윗나비에 비해 깃 아랫나비가 약간 좁아져가고 있다.

實物 14號-1에 보면 옷고름이 겹깃 아랫 부분에 겹에 겹쳐지지 않게 달려 있다. 그리고 實物 14號-1, 2는 모두 깃에 동정은 달려 있지 않다.

B. 金德遠公 一家衣服 중 저고리 16벌[그중 代表的인 亞字紋紬 赤古里(實物 15號-1)],⁽⁵⁰⁾ 李端夏의 夫人 저고리(實物 15號-2), 마석 出土 저고리 중 비단 소재 누비저고리(實物 15號-3)

[表 15] 단위 : cm



[圖 15] 實物 15號-3

명칭	實物 15號-1	15號-2	15號-3
뒷 길 이	41.5	50	49.5
고 대	18	18	18
깃 나 비	9	10	10
동정나비		5	4.8

(44) 이경자(1970), pp. 53~59

(45) 문화재관리국(1979. a). pp. 101~102. 1972년 3월, 서울시 영등포구 도곡동에서 출토.

(46) 1968년경 移葬時 發掘된 것으로 현재 이대 의류직물학과 복식자료실에 소장.

(47) 유희경(1974), p. 490.

(48) 이대 의류직물학과 복식자료실에 소장.

(49) 문화재관리국(1979, a), p. 152.

(50) 앞책, pp. 94~95, 148~68.

이들 저고리것은 朝鮮時代 1700年頃을 前後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遺物들의 代表的 형태이다. 즉 遺物 중에서 앞에 기술한 [圖 14]의 것모양을 보이는 것은 소수이나 그 나머지 거의 모두가 시기의 遺物은 [圖 15]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金德遠公 一家衣服 중 16번의 저고리가 이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당시 저고리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에 안것은 [圖 13]처럼 안것 아래를 고정되게 0.7cm 정도 간격을 두고 스티치를 하고 겹짓은 맨아랫 부분만 0.1cm 띄우고 스티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장식 효과와 함께 깃을 고정시키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 같다.

이들 저고리것에는 [圖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저고리들에 동정이 달려 있다. 그 폭은 깃나비의 반 정도 되는 것으로서 앞에 나온 實物 5, 6, 9, 11號 등에 비해 그 나비가 깃나비에 비해 약간 좁아지고 있다.

한편 實物 15號-3의 저고리것의 겹짓에는 [圖 14]와 다른, 옷고름이 달려 있는 형태가 보인다. 즉 [圖 14]에는 깃부분에만 옷고름이 붙어 있는데 비해 實物 15號-3에는 지금의 겹고름 다는 것처럼 겹짓 끝과 쇄의 반반씩 걸쳐 옷고름이 달려 있다.

이상으로 본 朝鮮朝 1700年 前後의 저고리것은 거의 전부가 당코것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안것은 끝부분이 점차 좁아지는 지금의 안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朝鮮時代 後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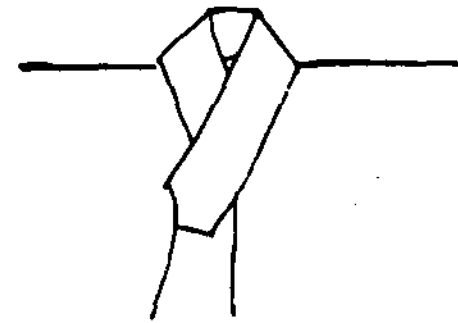
보통 朝鮮時代 後期는 開化期 以前까지를 말하고 있으나 本考에서는 참고로 1920年代까지의 저고리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後期の 저고리 유물들은 비교적 그 年代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年代별로 깃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A. 1750~1820年代의 저고리

이 시기의 저고리 유물로는 淸衍郡主의 저고리(實物 16號-1, 2, 3)가 있다.⁽⁵¹⁾

淸衍郡主(1754~1821, 英祖 30~純祖 21年)는 思悼世子와 惠嬪 洪氏 所生으로 그 副葬品 저고리 60點이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이는 英祖·正祖·純祖 3代에 걸친 약 50年の 저고리 모양을 보여주는 특히 중요한 資料가 된다.



[表 16]

단위 : cm

명칭	實物 16號-1	16號-2	16號-3
깃길이	22	25	25
고 대	12	14	14.5
깃나비	6	6.5	6.5
동정나비			2.4

[圖 16] 實物 16號-2 (이경자, “女子 저고리 小考”에서)

이들 저고리것은 朝鮮 中期 1700년 후의 代表的 저고리것인 [圖 15]와 그 형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특히 淸衍郡主의 저고리는 英祖·正祖·純祖代의 3代 50여년간에 걸친 저고리 형태를 보여주는 데 길이나 다른 부위의 차이는 있으나 깃 모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깃중등이가 모진 당코것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中期의 깃들과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깃나비가 前·中期(약 10~12cm 정도)에 비해 반 정도로 좁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깃길어도 짧아짐으로 해서 생긴 변화인 것 같다.

또한 淸衍郡主의 저고리 유물에는 동정이 달려 것이 거의 없지만 그중 하나인 實物 16號-3에는 동정나비 2.4cm인 것이 있어 동정나비도 前·中期에 비해(보통 5~7cm 정도) 반 이하로 좁아져 있는데 이는 깃나비의 좁아짐과 비례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이 시기와 거의 同一年代에 속하는 당시의 畫家 惠園 申潤福(1758年~?)의 風俗圖[美人圖(사진 1)]에서도 이같은 깃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惠園은 그의 風俗圖에서 주로 서민층과 기녀층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같음은 계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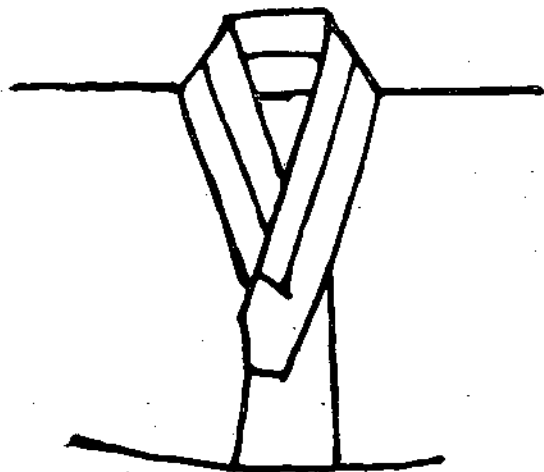
(51) 이경자(1970), p.64. 1963년 10월, 京畿道 慶州郡 細村面 岩洞里에서 발굴.

관계 없이 그 형태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B. 1870~1890年

이 시기의 저고리 유물은 梁憲洙 將軍(1816~1888年, 純祖 16~高宗 25)의 夫人이 晩年에 입었던 누비저고리(實物 17號-1)⁽⁵²⁾가 있다. 따라서 대략 1870~1880年頃의 저고리로 보아 옳을 것이다.⁽⁵³⁾

또한 이 시기의 유물로 池氏會祖母 저고리(實物 17號-2)⁽⁵⁴⁾도 들 수 있다. 즉 1870~1890年 때의 저고리이다.



[表 17]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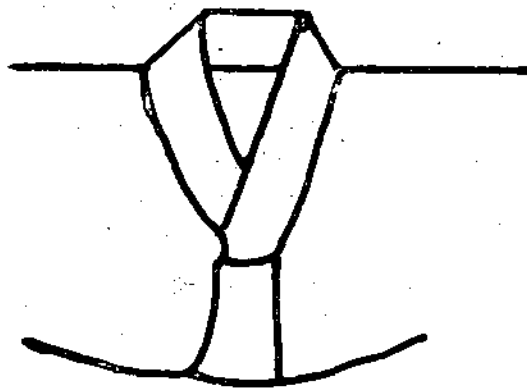
명칭	實物 17號-1	17號-2
	뒷길이	25
고 대	13.5	14
깃나비	6	5.5
동정나비	3	

[圖 17] 實物 17號-1

이 때의 저고리깃은 [圖 16]의 깃 형태와 큰 차이는 없으나 實物 17號-1과 같이 당코의 파임이 깊어지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깃궁둥이는 아직 모진 것이었다.

C. 1890~1900年

이 시기의 저고리는 안동 白氏宅 저고리(實物 18號)⁽⁵⁵⁾를 들 수 있다.



[表 18]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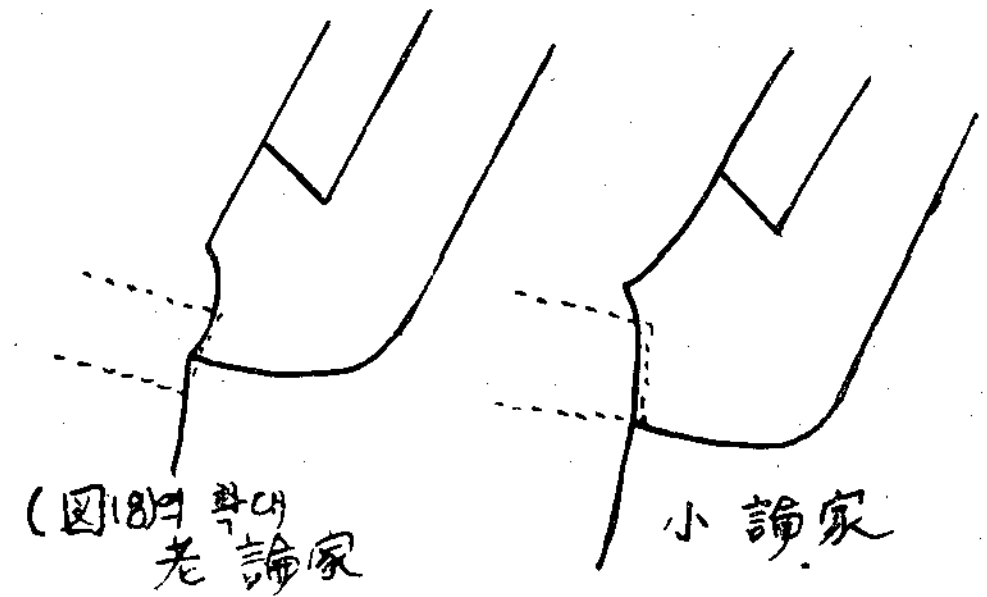
명 칭	實物 18號
뒷길이	21
고 대	13.5
깃나비	3.7

[圖 18]

이 저고리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圖 17]에 비해 깃나비가 아주 좁아졌다는 것이며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깃궁둥이가 지금의 것처럼 둥글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朝鮮時代 後期에 있어서 이 같은 시대적 깃 형태의 변천 외에 또 하나의 변화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老論·小論 등의 黨派에 따른 깃 형태의 차이가 있다.⁽⁵⁶⁾

實物 18號인 安東 白氏宅은 老論家인데 그 깃 형태는 다른 일반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당코를 약간 깊고 세련된 선으로 만들었다.



[圖 19]

[圖 20]

이에 비해 小論家의 깃은 [圖 20]⁽⁵⁷⁾과 같이 당코를 파지 않고 밖으로 삼각모양으로 뽀족하게 만든 것이 특색이며, 옷고름도 老論家의 깃에는 지금의 옷고름 다는 것처럼 다나 小論家는 설에는 걸치지 않게 깃 아랫 부분에만 단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 하겠다.

D. 1900~1920年

이때의 저고리의 깃 형태는 이전의 당코깃과 현재와 같은 보통깃 형태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시기라 하겠다.

즉 柳在冕氏 소장 柳氏의 祖母 金氏 저고리⁽⁵⁸⁾나 尹伯榮 女史 소장 모시적삼과 저고리⁽⁵⁹⁾ 등은 모두 당코깃을 하고 있으나, 즉 [圖 18]과 같은 형태이나, 비슷한 시기의 李氏宅 저고리(實物 19號)⁽⁶⁰⁾는 거의 지금의 저고리깃과 같은 형태를 보여 준다.

한편 1920年代가 되면 대부분 보통깃을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鄭忠謹 氏 소장 夫人의 16세 때 冠禮 저고리는 당코깃을 하고 있

(52) 이것은 梁憲洙 將軍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53) 이경자(1970), p.76

(54) 朴京子·林純暎(1981), p.55

(55) 앞책,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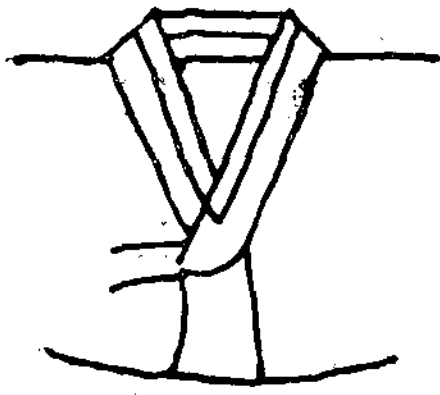
(56) 이경자(1970), p.81

(57) 박승남 氏 제공. 後代의 것이지만 깃 형태는 小論家의 전통적 깃 형태를 보여준다.

(58) 이경자(1970), p.85

(59) 앞책, pp.58~86.

(60) 朴京子·林純暎(1981), p.56



(圖 21) 實物 19號

[表 19] 단위 : cm

명칭	實物 19號
뒷길이	22.5
고대	14
깃나비	3.5
동정나비	1.5

는데 이에 대해 소장자는 「그 당시는 대부분 보통깃이 많이 나왔으나 婚襦저고리이므로 在來式 당코깃을 만들었고...」라고 증언하고 있음(61)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表 20]

시대	명칭 實物 번호	뒷길이	고대	깃나비	동정나비	깃 길이		비고
						겉깃	안깃	
朝鮮 初期	1號	50	18	11	—	33	>32	
	2號-148	18	18	12	4.5	34	<36	
	2號-250	18	18	12	4	37	>36.5	
	3號	49	18	11.5	—	42	<45	
朝鮮 中 期	5號-156	18.8	11	7.8	—	38	>36	※ 저고리길이와 상관없이 겉깃·안깃 길이는 31~42cm 정도이다
	5號-247	20	10	7	—	32	<35.5	
	6號-258	20	10	6	—	39	>34	
	7號-165	20	10	—	—	38	<40	
	7號-265	20	10	—	—	38	=38	
	7號-366	20	10	—	—	42	>41.5	
	8號-152	20	8	—	—	35	>33	
	8號-252.5	18	9	—	—	43	>38	
	8號-352	18	10	—	—	36	>31	
	9號-154	18	10.5	7	—	34.5	<37.5	
	9號-260	20	11	7.5	—	31	<40	
	9號-356	19	10.5	6.5	—	33	<36	
	10號-178	18	10	5	—	38	=38	
	10號-259	18	10	5	—	36	<40	
	11號	50	20	10	7	—	38	
12號-147	17	11	6.5	—	38	<39		
12號-253	21	12	—	—	36	=36		
12號-345	17.5	10	5	—	37	<39.5		
13號	53	18	10	6	—	38	>35	
14號-147.5	18	10	—	—	33	<36		
15號-250	18	10	5	—	31	<34		
15號-349.5	18	10	4.8	—	32	<34		
朝鮮 後 期	16號-122	12	6	—	—	18	<18.5	안깃이 겉깃보다 약간 길다.
	16號-225	14	6.5	—	—	20	=20	
	16號-32.5	14.5	6.5	2.4	—	21	<21.5	
	17號-125	13.5	6	3	—	20.3	<24	
	17號-220	14	5.5	—	—	16	<20	
18號	21	13.5	3.7	—	18	<20		

따라서 1920年代가 지나면 차츰 보통 깃 형태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朝鮮時代 初期·中期·後期로 나누어 저고리깃의 형태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첨가할 것은 [表 20]에 나타나 있는 저고리 겉깃과 안깃 길이의 관계이다. 지금의 저고리는 안깃 길이가 겉깃 길이에 비해 긴 것(보통 안깃 길이는 겉깃 길이+깃나비+1로 함)이 일반적인데 [表 20]에 나타난 수치를 비교해 보면 朝鮮時代 初·中期는 이것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즉, 겉깃이 안깃보다 긴 것도 꽤 있어서 지금과 같이 안깃 길이가 긴 것은 朝鮮 後期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비교적 차이가 나는 것은, 實物 17號-1에서 나타나고 있어 1870년대 후부터인 것으로 추측된다.

VII. 結 論

朝鮮時代의 저고리 옷깃은 漢字로는 주로 衿·襟·領으로 表示되었던 것으로 그 형태를 時代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朝鮮時代 初期의 저고리깃의 형태는 거의가 이른바 목판깃이라고 하는 모난 깃궁둥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판깃이 설에 붙은 위치가 다양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깃에는 동정이 달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깃나비는 10~12cm 정도인데 이는 지금의 깃나비(보통 3.5cm)에 비하면 3배 이상되는 넓은 것이라 하겠다.

朝鮮時代 中期에 속하는 宣祖·光海君年代(1590년대 前後)에는 가장 다양한 저고리깃 형태의 변천과정을 보여 준다.

이때의 옷깃은 初期와 같은 목판깃에서부터 칼깃·당코깃까지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채로운 종류의 여러 깃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후인 朝鮮 1700年을 前後해서는 거의 당코깃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깃궁둥이는 목판깃처럼 모진 것이었다. 그리고 안깃 것은 지금의 안깃과 같은 형태로 고정되어갔다.

그런데 깃나비나 겉깃·안깃 길이의 차야 정

도는 初期·中期를 통하여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時代 後期에 들어와서는 깃형태에 있어서 당코가 훨씬 깊어지고 黨派에 따른 차이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깃나비도 前代에 비해 훨씬 좁아져 반 정도 줄었으며(보통 6cm 정도), 이것이 나중에는 3분의 1 정도(3.5~3.7cm)로 좁아져 지금의 저고리 깃나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지금의 저고리 깃처럼 안깃 길이가 겹깃 길이에 비해 약간 길어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깃궁둥이는 모진 것이었는데 1890년이 지나서야 깃궁둥이가 둥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깃궁둥이는 둥글어졌지만 아직 당코깃으로 되어 있던 옷깃은 1900년이 지나서 지금같은 보통깃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920年 후에는 점차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金美子(1796), "民庶 便服袍의 옷깃에 대한 研究", 대

한가정학회지, 제41권 1호.

文化財管理局(1979, a), 「重要民俗資料(服飾)」,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제75호.

_____ (1979, b), 「廣州李氏一家衣服一括遺物」,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제80호.

_____ (1980, a), 「忠北 清原郡 求禮孫氏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제82호.

_____ (1980, b), 「忠北 清原郡 傳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제83호.

朴京子·林純暎(1981), 「韓國衣裳構成」, 서울: 수학사.

杉本正年(1979), 「東洋服飾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劉昌惇(1979), 「李朝語辭典」, 서울: 연대출판부.

유희경(1974),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이경자(1970), "女子 저고리 小考", 이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대의류직물학과(1980), 「충북대학교 소장 유물 실측도」

李弘植(編)(1977), 「國史大事典」, 서울: 大榮出版社.

張文戶(1980), 「服飾美學」, 서울: 獎學社

조선어학회(1949), 「조선말큰사전(2)」, 서울: 을유문화사.